

# 눈물 지우고 챔피언 등극 마침표 찍은 '수호신'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4> 투수 정해영

"아버지께서 한국시리즈 우승 포수가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KBO 리그 최초로 한 팀에서 함께 우승을 할 수 있었기 기쁩니다."

KIA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이 눈물 자국을 완벽히 지웠다. 지난해 구위 저하와 제구 난조 등 어려움을 겪으며 3년 연속 20세이브에 만족해야 했지만 올 시즌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세이브왕에 등극한 뒤 V12를 확정 짓는 아웃카운트까지 책임지며 우승의 수호신으로 거듭났다.

특히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해태타이거즈 소속으로 활약했던 정회열 동원대 감독의 아들인 정해영은 한국 야구 최초로 한 팀에서 부자가 1차 지명을 받은 데 이어 우승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겹경사를 맞았다.

정해영은 올 시즌 53경기에 출장해 2승 3패 1홀드 31세이브와 평균자책점 2.49를 기록했다. 50.2이닝을 소화하며 14실점을 허용했고, 불펜세이브는 세 차례에 불과했다.

31세이브를 책임진 정해영은 1998년 임창용 이후 26년 만에 타이거즈 소속으로 세이브왕을 수상한 주인공이 됐다. 해태가 KIA에 인수된 이후로는 처음 탄생한 세이브왕이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해영의 세이브왕 등극은 의미가 크다. 정해영은 지난 시즌 도중 구위 저하와 제구 난조 등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퓨처스리그 등판을 통해 밸런스를 되찾고 전력에 복귀

한 최초 동일 팀 부자 1차 지명 이어 통합 우승까지 '2대 패거' 세이브왕 → 우승 문지기 우뚝 "전력 투구... 힘으로 붙으려 해"



3.7만 Q 293 3,799  
publish\_paper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hai...young...62 아빠 우승이에요!

하는데 한 달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올해는 어깨 통증으로 전반기를 조기 마감한 뒤 한 달 가량 휴식기를 가졌으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굵직한 기록을 썼고, 4년 연속 20세이브와 개인 통산 120세이브 달성에도 성공했다.

정규시즌에서 보여준 정해영의 위력은 한국시리즈에서도 유효했다. 정해영은 사실상 더블데더로 치러진 1차전 서스펜드 게임과 2차전에 모두 등판해 뒷문을 책임졌다.



KIA타이거즈 정해영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성윤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우승을 확정지은 뒤 포효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V12 우승 후 정해영이 SNS에 올린 아버지 정회열과 합성한 모습.

KIA타이거즈 제공·정해영 SNS 캡처

1차전 서스펜드 게임에서 4점 차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퍼펙트로 경기를 끝냈고, 2차전에서는 6점 차로 앞선 9회초 다시 마운드에 올라 김영웅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1실점을 내주긴 했으나 더 이상의 실점 없이 수비를 끝내며 승리를 지켰다.

KIA가 패배한 3차전과 7점 차로 승리한 4차전에서 휴식을 취한 정해영은 5차전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1점 차로 앞선 8회초 2사 만루 위기에서 투입돼 이재현을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리드를 지

켰고, 9회초를 삼자범퇴로 매듭지으며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정해영이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성윤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배터리 호흡을 맞춘 김태균과 진한 포용을 나누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90년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한 팬이 SNS에 합성해 업로드한 우승 투수 정해영과 우승 포수 정회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해영은 우승을 확정 지은 뒤 "긴장을 많이 했지만 전력 투구를 하면서 힘으로

붙어보려고 했다"며 "한국시리즈 같은 큰 경기에서는 한 점 차나 열 점 차나 똑같은 세이브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했다.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버지께서 한국시리즈 우승 포수가 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며 "KBO 리그 최초로 한 팀에서 함께 우승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정연호 감독과 선수들이 지난달 31일 고흥 퍼펙트볼링장에서 고흥여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고흥군청 제공

##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재능기부 '호응'

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본기·경기 운영 등 지도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펼쳐 호응을 얻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정연호 감독과 강유라, 이미소, 남은설 등 선수 3명은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고흥 퍼펙트볼링장에서 고흥여중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펼쳤다. 또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고흥초교 등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씩 볼링 지도를 진행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의 이번 재능기부는 볼링 꿈나무를 발굴하고 전남 여자학

생 볼링을 부흥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흥여중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는 한운호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2학기 체육수업으로 26시간 편성해 하루 3시간씩 진행됐다.

지역 초·중학생 지도는 지역기반육성사업 강사로 참여해 활동했다.

정연호 감독과 선수들은 참여학생들에게 볼링 자세 등 기본기와 경기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호응을 받았다.

정연호 고흥군청 여자볼링 감독은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공영민 고흥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볼링 저변 확대와 볼링 명문도시로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남 여자볼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고흥=심정우 기자

## 광주FC 이정호 감독 "당당히 맞섰기에 성과 있어"

비셀 고베에 0-2 패... 첫 패배



광주FC의 창단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네 경기 만에 첫 패배를 안으며 전승 행진이 중단된 이정호 감독이 덤덤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J리그에서도 가장 화려로운 선수단을 갖춘 비셀 고베를 상대로도 당당히 맞섰기에 분명한 성과도 있다는 평가다.

광주는 지난 5일 일본 효고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고베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4차전에서 0-2로 졌다. ACLE 첫 패배를 안은 광주는 3승 1패(승점 9)를 기록하며 3승 1무(승점 10)가 된 고베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2위가 됐다.

사흘 전인 지난 2일 리그 경기를 치른 뒤 곧바로 원정길에 오른 광주는 체력 부담 속에 전후반 내내 슈팅 한 개에 그치는 등 크게 고전했다.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 3분 미야시로 다이세이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 실점했고, 후반 9분 사사키 다이주에게 세컨볼 헤더로 추가 실점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최선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지난 5일 일본 효고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비셀 고베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4차전에서 패배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광주FC 제공

을 다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면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수들은 체력적인 한계점이었음에도 경기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고베가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면 경기가 뜻대로 가지 않을 것 같았다. 제로 톱으로 경기를 주도하려고 선택했다"며 "결과적으로 제 선택이 잘못됐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이날 경기 패배로 ACLE에서 처음 무릎을 꿇었고 고베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 탄탄한 전력을 갖춘 고베는 ACLE과 J리그에서 모두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 감독은 "고베가 J리그에서 왜 선두인지 확실히 느꼈다. 좋은 팀이고 좋은 선수도 많다"며 "솔직히 열 번 경기를 하면 열 번 다 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부딪혀보지 않고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더라도 얻는 것이 있었고, 저도 우리 선수들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